



보건의료정책 수립에의 적극적 참여

안 명 옥* |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Active participation in health care policy

Myoung-Ock Ahn, MD*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Welfare, CHA University, Pocheon, Korea

*Corresponding author: Myoung-Ock Ahn, E-mail: amo@cha.ac.kr

Received January 29, 2012 · Accepted February 13, 2012

Development of public health has had great impact on quality of human life since the Renaissance. Earlier, Rudolph Virchow indicated that medicine is social science, and politics are nothing else than medicine at large scale. In order to achieve healthy country, well designed health care policy is essential. Active participation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in politics as well as policy planning is needed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all people in Korea. Active involvement in health care planning can be social responsibility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In terms of methodology of active participation in health care policy, three folds approaches are suggested. First, to learn more in different field such as politics, public administration, and law. Secondly, to become politician and administrator actively as well as to become active voter. Thirdly, to work as a team of integration to maximize team spirit for the common good.

Keywords: Health professionals; Health care policy; Active participation; Social responsibility; Common good

시 론

보건의료정책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인간의 삶과 복지의 중심에 있다. 보건의료정책의 역사는 정치의 역사와 함께 한다. 더욱이 15세기 르네상스 시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한 공중보건은 정책으로써 인간의 삶을 바꾸는 획기적 전기가 된다. 나폴레옹이 살던 19세기 중반 상수도, 하수도, 주택환경의 개선 등은 의학과 의료정책의 또 다른 성과로 그 당시 의학은 사회과학으로 여겨졌다. 독일의 병리학자이자 사회개혁자였던 Rudolph Virchow는 “Medicine is social science, and politics are nothing else than medicine at large scale”이라 설파하였다. 이 주장은

20세기 말레이시아의 의사 출신 마하티르 수상의 주장과 다름이 없다. 신해혁명의 주인공이며 의사이자 정치철학자인 쑨원의 실천도 마찬가지다. 필자 역시 정치의 한가운데에서 절실히 깨달은 바다. 잘된 보건의료정책은 유토피아로의 길이다. 행복의 다른 이름인 양질의 삶의 질을 지향하는 중심 정책이다. 이렇듯 새로운 패러다임, 체계 혹은 체제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확고히 가지고 접근할 때 보건의료정책 화두는 진지하게 시작된다.

현시대의 문제와 해결점

잘 알려진 세계보건기구 헌장 전문의 건강 정의인 “건강

©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이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함을 말한다(Health...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에 이제는 영적 건강(spiritual health)은 물론 1980년 이래로 보건학에서는 경제적 건강(economic well-being), 지적 건강(intellectual well-being)을 더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문화적 건강(cultural well-being)을 더하여 2004년 국회에 제출한 이래, 7가지 건강개념을 정책에 반영해 왔다.

오늘날 분화에 분화를 거듭한 의료의 전문성과 발달은 미시적으로는 대단한 과학적 성과를 이루었으나 오히려 거시적인 융합, 통섭에서는 거리가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의료현장의 상황의 복잡성을 일반인들과 공유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 셈이다. 아니 의료영역 안에서도 각각의 영역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임상의학자와 기초의학, 예방의학자 간 이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 의료 영역 경험에 없는 이들이 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원초적 환상이다. 그러므로 보건의료를 잘 아는 전문인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그들의 언어로 끊임없는 설득이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다. 많이 알수록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영역이 더 확대되듯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영역도 마찬가지다.

의사와 정치, 정책

올해는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바뀌는 해다. 정치영역에 진출하려는 의사들의 소식이 반갑다.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변화는 관여하는 사람에 의해 바뀐다. 문제는 사람이다. 정책의 변화도 결국 그러하다. 정책결정권자의 실력과 정책이해도가 높을수록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살리는 공리를 하던 매순간의 의사 경험과 훈련이 정치와 정책활동의 배경 철학으로 얼마나 소중한지 필자의 경험적 소신을 우선 나누고자 한다. 한 명의 환자를 볼 때도 치열한 무결점주의를 추구한다. ‘인간의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편리한 논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적용되나, 의사에게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절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사천팔백만 국민에게 두루 영항

을 주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입법, 행정, 사법부를 통칭)에는 더욱이 더 실수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정책결정자의 오판과 실수가 온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필자는 의사의 다른 덕목으로 정직과 신뢰를 언제나 강조한다. 신뢰와 정직은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 기본요건이다. 신뢰와 정직은 환자와의 관계만이 아니고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자체, 그 과정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 즉 팀워크의 원칙이다. 의료현장은 거대한 팀에 의해 운용된다. 검사결과를 못 믿거나 함께 수술하는 팀, 혹은 환자를 돌보는 각 영역에 대한 무한한 신뢰 없이는 원천적으로 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은 바로 잘 모른다 하고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구하여 환자에게 최선을 다한다. 정책현장에서도 이러한 덕목들이 필수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에 좌절감은 깊이를 더한다.

적극적 참여만이 해결책

지식인은 사회의 혜택 받은 소수다. 사회에 돌려야 할 원초적 빚이 있다. 문제를 좌시만 하는 것은 비겁한 지식인이다. 좌절감에 주저앉는 것은 용기 없는 지식인이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식인이 진정한 지식인이다.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의식하지 않아도 남을 돕는 일을 하는 의사만큼 축복받은 직업이 드물 것인데, 그에 따른 책임을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일이다. 보건의료정책에의 적극적 참여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타인이 나를 이해하기를 원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이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빠르거니와 마땅한 일이다. 유네스코가 1995년 적시한 인생의 황금률인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해주길 원하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하라”를 실천하는 일이다. 복잡한 의학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의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해결의 실마리는 우선 보건의료를 잘 아는 의사들이 정책 영역으로 진출하는 일이다. 혹은 적극적인 전문가 자문집단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더 좋

은 적극적인 방법은 정교한 체계의 단계를 밟는 일이다.

전문적으로 학문의 영역에 들어가 정책학을 공부하고 행정학을 공부하는 과정을 밟으면 금상첨화다. 이미 의사들은 경험에서 알듯이 많이 알수록, 실력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보건대학원을 야간으로 다니고 방송통신대학을 이용하여 행정학과 법학을 공부하고 이제는 사이버대학을 이용하여 사회복지학 등 다른 학위와 전문영역을 섭렵할 수 있다. 이렇게 정식으로 학문을 익혀 철저한 준비와 무장을 하면 용기도 더해진다. 필자의 경험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모성태아학 세부전공의 학자적 경험, 예방의학과 보건정책(인구 및 가족보건)분야의 학문적 배경은 국회 4년간 60년 의정사상 최고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모두 보건의료영역 훈련 덕분이고 보건의료계 팀스피릿의 결과였다.

정책영역에 의사들의 진출이 가장 선행되어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기관에도 많은 의사들의 진출이 필수적이다. 보건소만이 아니다. 식약청을 비롯하여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거 진출해야 한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모두 예전에는 보건사회부에 속해 있었다. 이 분야도 물론이려니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융합의 영역 모두에 진출하지 않으면 보건의료는 필연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국민을 위하여도 분명히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어느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든지 무조건 환영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태도에는 이미 전문가적 지식인의 소신은 없다. 어떤 정책이든지 환영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정교한 보건의료정책 설계를 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발상은 실상 의료계에서 키워준 발상인 셈이다. 의사의 품격은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두었을 때 그 빛을 발한다. 의사의 이익이 아닌, 의사를 찾는 아픈 가진 국민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심언어이다. 그러려면 보건의료정책이 바르게 서야한다.

의료의 현장에는 언제나 팀워크, 팀스피릿이 작동한다. 이를 무의식적으로 매일 실행하며 살면서 가장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의사들을 보면 갈등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히포크

라테스 선서에서 보이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보편적 형제애로 팀스피릿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자유의사로 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멋으로 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협력이다. 세계 최고의 국민건강을 향한 협력! 대한민국 행복과 성장의 일등 공신이어야 할 가장 우수한 두뇌집단의 비틀거리는 현재 상황은 답답하다. 참담하다. 물론 보건의료정책이 문제인 것도 분명하다.

결 론

담대하게 용기 있는 변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실력을 키워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적극적 참여 없이 변화는 어렵다. 관계자가 요청해야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참여의 의사를 밝히고 생각과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참여가 있어야 한다. 필자 자신의 경험에서 절실히 알지만 나를 찾는 환자에게 익숙한 의사들이어서 요청 없이 내가 나서는 것에 익숙지 않다. 그러나 적극적 참여 없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꼭 간직하였으면 좋을 도구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러 영역으로 확장하여 배우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넓히자. 융합은 여러 영역에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 스티브 잡스는 좋은 예다. 의사의 냉철한 두뇌와 뜨거운 가슴으로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섭렵하자. 둘째, 적극적 참여는 필수다.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자. 선거권자로서의 정치참여는 물론 피선거권자인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의료인이 많았으면 좋겠다. 정책결정에 결정적 영향력은 막강하다. 소명에 의거한 바른 정책은 그럴 때 빠르게 이루어진다. 환자가 치유되는 것을 돕듯이 국가치유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다. 행정 영역은 또 다른 정치참여다. 셋째, 팀스피릿을 빛나게 하는 협동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덕목이다.

히포크라테스가 이미 간파했듯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의학은 예술이다. 공동선을 향한 삶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하다.

핵심용어: 보건의료 전문가; 보건의료정책; 적극적 참여; 사회적 책임; 공동선